



최고를 지향하는 인간 중심의 참 병원, 고려대 안산병원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I. 실력으로 승부하는 집중과 선택의 '특성화센터' 운영

진료역량에 있어 고려대 안산병원은 조기에 체계화된 특성화센터 중심의 진료서비스를 공고히 해 '응급의료센터', '재활의학센터', '종합건강진단센터', '수면장애센터', '산업의학센터' 등을 국내 최고수준의 전문센터로 확대 육성하고 있습니다.

II. 선진 의학을 구현하는 '세계적인 연구소' 운영

고려대 안산병원은 국내·외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의과학연구소', '인간유전체연구소', '노인건강연구소' 등을 통해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 선진 의학 구현을 위한 첨병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III. '나눔과 봉사'를 통한 인술의 실천

고려대 안산병원은 '사할린동포지원', '안산시 외국인노동자센터 지원', '파키스탄해외의료봉사단 파견', '필리핀심장병어린이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병원,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하며 사랑실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소침습수술의 선도적 역량, 고려대 안산병원 신경외과

최강의 의료진 구성, 최근 4년간 수술 1만례 돌파, 뇌, 척추와 신경 및 만성통증 치료 국내 정상급 수준



우리 주변에는 허리, 목 등에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또한 원인모를 통증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고질적인 척추질환, 난치성 통증 등은 대표적인 현대병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고려대 안산병원 신경외과가 2002년 3월부터 최근까지 4년간 수술건수 1만건을 돌파했다. 신경외과 분야에서 4년간의 짧은 기간 동안 수술 1만례 시행은 국내 소수의 의료기관만이 달성할 수 있는 수치로, 고려대 안산병원 신경외과가 뇌, 척추와 신경 및 만성통증 치료 분야에서 국내 정상급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뇌, 척추질환 등 큰 수술도 최소침습수술로 높은 성공률 나타내

고려대 안산병원(원장 박영철) 신경외과(과장 박정율)가 최근 4년간, 신경외과 수술건수(minor, major수술포함) 1만례를 돌파했다. 이는, 2002년 3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수술건수를 집계한 결과이며, 2002년 1,440건, 2005년 2,864건, 2006년의 경우 3,144건에 이르는 등 총 10,077건을 달성한 수치다. 수술건수 1만례를 분석한 결과 중증 혹은 큰 수술이 필요했던 환자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특히, 척추

질환 및 만성통증 질환의 경우 높은 성공률과 더불어 최소침습수술로 좋은 결과를 얻은 점은 괄목할 만한 내용이다. 박정율 과장은 “최근 4년간의 짧은 기간 동안의 이러한 결과는 뇌, 척추와 신경 및 만성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하는 분야에 있어서 고대 안산병원이 이제는 지역사회를 넘어 국내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찾는 신경외과 진료의 요람이 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2면에 계속〉

제2기 원내기자단 위촉

취재현장 누비며 기사발굴하고 사보제작 등에도 적극 동참해



고려대 안산병원은 2월8일 오전 10시 별관 지하1층 소강당에서 '제2기 원내기자 위촉장 수여식' 을 거행하고, 원내 커뮤니케이션 강화 및 홍보활성화를 위해 이서영(치과 레지던트), 이선희(간호부), 윤성식(관리팀), 강봉구(산업의학센터), 박준우(시설팀), 박경섭(시설팀) 직원 등 총 6명을 원내기자로 위촉했다. 이날 위촉받은 원내기자단은 행사 사진촬영 및 취재, 기사작성 등의 원내 기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뉴스레터 및 포탈사이트 콘텐츠 등의 제작 등에도 적극 동참해 홍보팀과 함께 유기적 뉴스취재망을 구성하게 된다.

이번에 위촉된 원내기자단은 현직기자, 디자이너, 홍보담당자 등으로부터 ▲ 홍보 매체의 이해 ▲ 취재 및 기사 작성 I (단신, 인터뷰기사) ▲ 취재 및 기사 작성 II (탐방, 기획기사) ▲ 정보 공유 및 업무수행을 위한 PC활용능력 ▲ 디지털카메라 촬영, 사진 편집 및 포털 이용 교육 ▲ 디지털카메라 촬영 실습(출사대회) ▲ 과제기사 작성(과제기사 작성/제출/평가) 등의 7주간의 전문적인 교육을 성공적으로 받아 이미 취재현장에 투입되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영철 원장은 축사를 통해 “병원에는 여러 직종의 전문가들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들이 함께

유기적으로 활동할 때 업무상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원내기자단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생동감 넘치는 병원, 직원간 커뮤니케이션이 강한 병원으로 재탄생 할 수 있도록 왕성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려대 안산병원은 다양한 직종별로 홍보활동에 관심과 소양을 갖춘 총 10명의 원내기자단을 구성해 원내행사 취재 및 사진촬영, 교직원포탈사이트 기사 등록, 사보제작 등에 적극 참여해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안산 원내기자 명단 = 원내뉴스 취재 제보〉

병원	구분	소속	이름	내선	E-mail	비고
안산	2기	관리팀	윤성식	5793	sungsik21@kumc.or.kr	행정직
		시설팀	박경섭	5851	kyungsub78@naver.com	건축기사
		전기실	박준우	5123	linkjun@hotmail.com	전기기사
		치과	이서영	5370	sniper9979@hanmail.net	레지던트
		산업의학센터	강봉구	5397	b-goo@hanmail.net	행정직
		간호부	이선희	5539	sunny5415@nate.com	간호사
안산	1기	산업의학과	안광찬	5403	ahnkc21@hanmail.net	행정직
		간호부	송보라	5415	vio97@kumc.or.kr	간호사
		간호부	이숙현	5040	pporim@nate.com	일반업무
		진단방사선과	최인자	5359	gold8157@hanmail.net	의기직

최강의 의료진, 각 세부전공별 완벽한 전문체계 구축



난치성 통증, 대사성 질환 및 신경재생연구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수준높은 연구성과 이어...

한편, 고려대 안산병원 신경외과는 사고로 인한 신경이나 척추, 혹은 뇌손상 외에도 최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환자에서의 퇴행성 질환, 골다공증성 압박골절 등이나 고혈압, 당뇨병 등에 합병된 만성 대사성 신경질환, 난치성 통증질환, 뇌졸중 등의 후유증, 또는 척추수술 후 후유증으로 인한 신경병증성 통증, 신경재생 등의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치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야에서 국내 선도적인 진료, 연구 역량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안산병원 신경외과는 최근 4년간 매년 15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해 오고 있으며 특히, 2006년에는 29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이중 8편이 SCI논문으로 연구역량이 배가 되었다.

‘신경중재적치료’ 및 ‘최소침습적수술’로 신경외과학 분야의 새 지평을 열다

1994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고대 안산병원과 함께해 온 박정울 교수는 통증과 운동장애, 뇌종양, 간질 등의 치료를 담당

하는 뇌정위기능분야와 척추분야에서 매년 평균 15편의 연구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하고 년 30회 이상의 국내 및 해외 초청 강연을 하고 있으며, 기초 및 임상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Toronto University와 동 대학 Neuroscience Center 등에서 2년간 Rresearch Fellowship & Clinical Fellowship 정규과정을 수료한 후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독보적 위치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10여년 이상 개발, 축적해 온 다양한 신경차단술과 고주파신경치료, 신경자극술 등의 신경중재적치료 및 최소침습적수술 치료법은 국내 최다 시술(2만례 이상) 등 국내 선도적인 진료역량을 자랑하고 있다. 아울러 300여명의 국내 외 여러 분야의 학자와 의사들의 임상교육을 의료원에서 시행해 왔으며 최근 수년간 여러 기관에서 해당 분야 명의로 선정된 바 있다. 한편, 임동준 교수는 2003년 9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미국 Arizona의 Barrow Neurological Institute (BNI) 및 일본 나고야 대학에서 Endovascular Treatment for Neurovascular Disease를 연수하고 귀국하여 현재 뇌혈관 질환 및 뇌종양 환자의 진료와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또한, 김세훈 교수는 척추질환 분야 전문가로 세계 최고 수준의 Stanford의대 연수중에 있으며, 김상대 교수는 지역적특성으로 특화된 소아신경외과 질환 및 두부 척추외상 분야에서 진료 및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최소침습수술의 메카 고려대 안산병원

‘최소침습 전문수술센터’ 국내 최고수준의 역량 과시

현재, 최소침습수술은 하나의 트렌드가 아닌 필수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안산병원에서는 수년전부터 국내 최소침습수술의 대가로 꼽히는 신경외과 박정울 교수(회장)를 비롯해 산부인과 김탁 교수(부회장), 일반외과 송태진(총무), 정형외과 박종용 교수(간사) 등 거의 모든 임상과 의료진이 참여하는 최소침습수술연구회를 구성한 이후 수년간의 준비와 연구 끝에 최근에는 ‘최소침습 전문수술센터 개소’와 함께 기념 ‘심포지엄’을 열어 보다 전문화되고 정교한 시술이 행해지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신경외과 영역의 최소침습 뇌·척추 및 통증수술, 외과의 복강경수술, 흉부외과의 흉강경을 이용한 내시경수술, 산부인과 내시경을 이용한 자궁질환 치료, 피부과의

액취증 수술, 이비인후과의 내시경하부비동 수술 등 거의 모든 임상과에서 활발히 시행되고 있고 그 결과 역시 매우 좋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신경외과는 고려대학교 최소침습수술 연구회 및 최소침습수술센터의 운영을 활발히 전개해 임상 각과와 최소침습수술에 관한 협진체계 구축과 더불어 국내 최소침습수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의 ● 고려대 안산병원 신경외과 031)412-5050



뇌정위기능과 척추분야의 권위자 박정울 교수



뇌혈관 및 뇌종양 분야의 선도주자 임동준 교수



척추질환 분야의 뉴프런티어 김세훈 교수 (美, Stanford의대 연수중)



소아신경외과 및 척추외상 분야의 차세대주자 김상대 교수



치과의 공포를 없애라, 물방울레이저 도입

통증과 마취없이 임플란트, 잇몸성형, 충치치료 등에 활용 가능해



고려대 안산병원이 3월 2일 물방울레이저 (Water Lase MD, 사진기기를 도입해, 치과치료에 대한 공포감으로 치료를 미루거나 거부하고 있는 환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에 도입한 최신형 물방울레이저 기기인 'Water Lase MD'는 일반 레이저와 달리 레이저 에너지를 흡수한 물방울의 힘으로 치아나 잇몸 등을 절삭, 절개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 레이저 자체가 갖는 마

취효과와 물방울의 지혈 효과로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으며, 드릴 등 기존 치료기와 달리 진동에 의한 치아 지각과민을 유발하지 않는 장점이 있어 환자들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물방울레이저 기기를 이용하면 임플란트, 잇몸성형, 스케일링, 충치 및 시린이 치료 등 거의 모든 치과 진료에 활용 가능하며, 특히 임플란트 시술 및 외과적 술식이 어려운 당뇨나 고혈압 환자들도 안심하고 치료 받을 수 있다. 특히, 치과는 'Water Lase MD'를 도입함으로써 치료 술식이 간편해 집과 동시에 환자 치료시 기존 레이저 치료에 비해 수술

부위의 온도상승을 방지해 술 후 후유증과 불편감을 호소하는 등의 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어 의사 및 환자 모두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치과 류재준 교수는 “당뇨 환자는 치주염 발생 위험이 정상인 보다 3배 정도 높는데, 물방울 레이저가 갖는 자체의 살균력으로 임플란트 이식시 일어날 수 있는 2차 감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마취 주사를 따로 놓지 않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의 경우 마취 주사액으로 인한 혈압상승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려대 안산병원 치과 031)412-5370



국내 최고수준의 임상술기, 고려대 안산병원 내시경실

암 발생률 1위 위암, 암 발생률 및 사망률 3위 간암 등 조기진단 필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내시경실은 위, 장, 식도, 간 등 소화기에 관련된 질환을 진단 치료하는 검사실로, 내시경시술을 통해 소화기계를 비롯한 인체 내의 장기에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수술을 하지 않고서도 가장 쉽고 정확하게 이상 부위를 진단하여 치료할 수 있는 현대 의학의 최첨단 시술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특성화센터 소개에서는 내시경을 국내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린 본원 내시경실을 탐방하여 현재의 내시경 시술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를 살펴보고 또한 본원에서 시행하고 내시경 시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하겠다.



1 2
3

1. 안산지역 최초로 도입한 캡슐내시경 장비
2. 국내 최고 수준의 임상술기를 자랑하는 내시경실 교수진
3. 내시경검사 장면

지속적인 연구와 다양한 임상사례로 국내 최고의 내시경실 구축

속편한 내시경실 구현으로, 환자 만족도 높아

안산병원 내시경실은 1998년 미국 Harvard 의대 등에서 연수하고 최장, 담도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내시경실장 이흥식 교수를 필두로, 1992년에는 MD앤더슨 암센터 등에서 활동한 최재현 교수(현, 종합건강진단센터 소장)와, UCLA 등에서 연수한 이상우 교수(현, 진료부원장), 미시간의대에서 연수한 임형준 교수 등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10명의 전문의와 김현주 간호사의 8명의 간호사 등이 신규 조화를 이루면서 더욱 심화되고 전문화된 내시경적 수술 및 진료역량을 배가시키고 있다.

내시경치료술 국내 최고수준

구강에서 항문까지 모든 소화관 질환 진단 가능해

고려대 안산병원 내시경실은 기존의 위 내시경, 대장내시경, 담도내시경과 더불어 모든 장비를 완비하여 구강에서 항문까지 모든 소화관과 관련된 질환의 진단이 가능한 시스템을 완비하고 있다. 또한, 소화관운동검사실과 내시경 초음파실을 구비하여 기존의 검사와 접목하여 소화기계통의 형태적 진단뿐 아니라 기능적 진단도 수행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2004년 11월에 도입한 소장경내시경과 2007년 2월에 도입한 캡슐내시경은 안산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고려대 안산병원에서만 시술이 가능한 안산지역 및 경기 서부권 지역주민에게 선도적인 의료행위를 실천하고 있다. 또한, 안산병원 내시경실은 기존의 소화기관의 진단 뿐만 아니라 조기 위암 및 대장암에 대한 내시경 수술, 내시경 담석제거술 및 소화기암에 대한 스텐트삽입술 등 내시경 치료술에 있어서 국내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위 및 대장내시경을 동시에 시술하는 One-Stop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위와 대장내시경을 각각 시행할 때 가중되는 환자의 불편함을 최소화 시켜 환자 만족도

가 매우 높다. 이와 더불어 환자에게 내시경을 시행하다 용종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직접 용종절제술을 시행해 암으로 발전될 수 있는 여지를 미연에 제거함으로써 향후 환자가 병원에 다시 내원할 필요가 없게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임상진료 뿐만 아니라 실험실 연구를 통하여 기초 의학과 접목,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병행하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의료발전과 세계적인 연구성과 등을 통해 세계적인 센터로 성장해 나아가고 있다.

내시경실장 이흥식 교수 Interview



흔히, 3대 암으로 위암, 폐암, 간암을 꼽습니다. 특히 위암은 우리나라 암 발생률 중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간암은 발생률과 사망률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화기계질환의 건강 유무를 체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현재의 내시경은 식도부터 항문까지 전 소화관에 대하여 검사가 가능한 수준이며 수술을 하지 않고서도 정확한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시술 중의 하나입니다. 소화기계의 각종 암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진단하는데 있어서 내시경만큼 좋은 시술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환자들은 내시경을 무척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수면내시경을 이용하면 환자가 잠든 사이에 내시경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시술보다도 고통이 덜하고 후유증도 없는 시술입니다. 고려대 안산병원 내시경실은 국내 최고수준의 의료진과 최첨단 진단장비 보유,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 등으로 국내뿐만아니라 세계적인 내시경센터로 발돋움 하고 있습니다. 📌

글 ● 원내기자 윤성식(관리팀) sungsik21@kumc.or.kr 사진 ● 원내기자 박준우(시설팀) linkjun@hotmail.com

문의 ● 고려대 안산병원 내시경실 031)412-5580



안산지역 최초로 캡슐내시경 도입

비타민 알약크기 삼키기만 하면, 내시경 검사 끝



고려대 안산병원이 2월 22일 캡슐내시경 시스템 (Given Diagnostic Imaging System)을 안산 지역 최초로 도입했다. 이번에 도입한 캡슐내시경 시스템은 세계최초로 캡슐내시경을 개발한 이스라엘 기븐이미징(Given Imaging Ltd.)사의 제품으로, 미국 FDA공인국과 유럽의 CE마크 인증, 캐나다 CSA, 호주 TGA등을 획득한바 있는 효과와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된 최첨단 장비다. 캡슐내시경은 비타민 알약크기의 소형비디오 카메라

를 삼키면 캡슐이 장의 연동운동에 의해 소화관을 통과하면서 영상을 촬영하고 전송하는 원리로, 마취가 필요 없고, 구토 등의 불편한 증상이나 시술의 통증 없이 편안하게 내시경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소아 및 노인을 비롯한 일반내시경을 받기 어려운 환자나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검사자 등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에 도입한 Pillcam SB 캡슐내시경은 접근이 어려운 소장질환을 진단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8시간 동안에 5만여장의 사진을 촬영해 환자는 수진장치만 병원에 반납하면 내시경 검사가 끝나게 되어, 이후 전문의의 판독으로 질병 여부를 가려내게 된다. 한편, 안산병원 최초로 캡슐내시경 검사를 받은 윤영주(13, 남)군은 "알약이라고 생각하고 삼키기만 하면 내시경 검사가 끝나서 너무 간편하다"고 말해 캡슐내시경의 편리성을 강조했다. 📌

문의 ● 고려대 안산병원 내시경실 031)412-5580



작은 시도, 큰 변화

원무팀이 제기한 의료정책, 유시민 장관 받아들이며 관계법령 개정키로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 원탁회의에서 직접적인 민원제기 통해 해결된 첫 사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유시민) 주재 '민원처리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에서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의료급여환자 대불금 상한선 폐지'에 관한 의료정책 개선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해 해당 장관이 현행법에 대한 문제의식을 같이하고 관계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는 그동안 일선에서 소홀히 취급되었던 통상적업무의 한계를 탈피한 담당부서 직원(법무담당 손종도, 재원미수담당 최종현)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노력으로 얻은 성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다.

의료급여 환자 대불금 상한선 폐지 통해

수급권자가 대부, 사채 등을 이용하는 병폐방지 가능해져

이번 '의료급여환자 대불금 상한선 폐지'에 관한 관계법령이 개정되면, 소외된 계층인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선에 의한 보상 제도를 의료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도 절차와 동일하게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본인부담금 상한제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에 납부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심사평가원으로 직접 청구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수급권자가 대부, 사채 등을 이용하는 사회적 병폐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응급대불 청구시 본인부



왼쪽에서 두번째 원무팀 손종도 직원, 세번째 유시민 장관, 오른쪽 끝 최종현직원

담금 상한제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도화함으로써 의료기관 등이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응급요를 거부하는 폐해를 효과적으로 해결 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소외된 계층인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내국민 역차별 대우를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6항, 7항에 대해 보건복지부 기초 의료보장 팀에서 의료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도 절차와 동일(유사)하게 개정하고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전 의료급여 환자 본인부담금 상한제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대위권을 행사하여 시, 군청으로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지침서를 시, 군청에 하달하겠다"며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번 사례와 같이 직접적인 민원제기와 민원을 제기한 관계자와의 원탁회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원탁회의 성과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번 원탁회의에 참가한 고려대 안산병원 원무팀 법무담당 손종도, 재원미수담당 최종현 직원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했을 뿐 민원이 해결되어 무엇보다도 기쁘다. 이번 조치를 통해 환자와 의료기관, 그리고 정부가 하나 되어 잘못된 법령을 개정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시민 장관, 황영원 기초의료보장팀 주무관, 보건의료정책 의료자원팀장, 심사평가원 의료급여실 황차익 부장, 고려대 안산병원 원무팀 법무담당 손종도, 재원미수담당 최종현 직원 등이 참석했다. 📢

문의 ● 고려대 안산병원 원무팀 법무담당 031)412-6129

잘못 알려진 영양상식

최근 식품과 영양에 대한 관심과 함께 많은 정보들이 각종 언론매체, 잡지나 건강식품업체의 유인물 등을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중에는 유익한 것도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개인적 체험, 영리목적의 유사광고 등도 포함되어 있어 그릇된 편견을 갖게 해 치료를 지연시키거나 치명적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오해 1 해장술을 마셔주면 장이 풀려 간독제거에 좋다.

과음을 하면 두통, 구토, 속쓰림 등으로 고생을 하게 되는데 이는 간에서 알콜분해효소에 의해 다량으로 형성된 아세트알데히드가 뇌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이때 다시 해장을 한다며 술을 마신다면 혈중 알콜농도는 다시 높아지고 아세트알데히드의 자극이 일시적으로 소실되어 앞서 말한 증상이 경감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한 영양장애, 위, 간, 췌장에 가해지는 심각한 타격은 소화불량, 흡수불량, 간기능 손상 등을 초래하고 비타민 결핍을 가져와 신경염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과음을 한후 다음날 아침에는 간단하나마 국물이 있는 식사와 비타민을 보강해 줄 수 있는 주스 등을 섭취해주는 것이 좋다.

오해 2 임신부는 아기뿔까지 두배를 먹어야 한다.

임신중의 영양이 임신과정과 출산, 태아의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임신중의 적절한 체중증가는 10~13kg정도로 너무 적으면 저체중아를 낳기 쉽고 사산율이 증가한다. 반대로 너무 비만해 진다면 임신성 당뇨, 고혈압, 분만장애, 사산 등의 위험을 초래한다. 따라서 산모의 체중은 식사와 활동량에 따라 계획조절되어야 한다. 흔히 아기뿔까지 2인분을 먹어야한다고 하지만 열량면에서는 정상적인 여자보다 절반기엔 150kcal, 후반기에는 350kcal를 더 권장하고 있으며 농축된 당분이나 지방식품 보다 소화가 잘되는 살코기나 생선, 계란, 두부 등 단백질과 철분함유 식품을 섭취하면 좋다.

오해 3 죽염은 신비로운 약제로 소금과 달리 섭취해주면 몸에 좋다.

소금(NaCl)의 주성분인 나트륨(Na)은 우리몸의 체액균형, 삼투압조절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많은 양을 필요로 하진 않는다. 음식을 요리할 때 별도로 간을 하지 않아도 식품자체에 함유된 양으로 일일섭취량이 충족되며 우리나라 소금 섭취량은 평균 12~20g으로 일본의 12g, 미국의 10g에 비해 많은 편이다. 소금의 과잉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주고 혈압을 올리며 임신성 부종을 가져오는 등 많은 문제를 유발한다. 죽염은 소금을 대나무에 넣어 구운 소금으로 그 성분은 일반소금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 따라서 요리할 때 소금대신 사용하는 거야 문제될 게 없지만 별도로 특효약처럼 복용한다면 삼가해야 할 것이다. 📢

글 ● 원내기자 이서영(치과 레지던트 1년차) sniper9979@hanmail.net



찰칵찰칵!!!



희망아이의 크고 힘찬 울음소리처럼...

2007년 진짜새해, 희망아이의 힘찬 울음소리가 고요한 안산밤 별님들을 모두 다 깨워 놓았어요. 정해년(丁亥年) 음력 1월 2일 새벽 2시 52분에 태어난 2007년 고려대 안산병원 1호 신생아 정현수 아이... 현수의 엄마 송보라(분원 간호부) 선생님은 "새해 처음으로 우리병원에서 특별하게 태어난 만큼 밝고 착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

사진 제공 ● 원내기자 간호부 송보라 vio97@kumc.or.kr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진을 사연과 함께 manpr@kumc.or.kr 으로 보내주세요. 선정되신 분께는 문화상품권(5만원)을 보내드립니다.



사랑을 전하는 건강지킴이 간호부

1985년 5월 6일 병원개원과 함께 고대안산병원이 경기 서부권 중심이자 해안시대 대표의료기관으로 성장발전 해 오기까지 그 중심에는 간호부가 함께 하고 있었다. '진정한 고객감동의 친절 간호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1998년 9월 1일 증축 개원, 1999년 9월 1일 간호과에서 간호부로 승격, 현재 3대 김정숙 간호부장에 이르기까지 고객 눈높이에 맞는 최고의 맞춤간호를 지향하고 있는 간호부를 소개해 본다.



간호부 수간호사 이상 단체사진, 앞줄 왼쪽에서 일곱번째 김정숙 간호부장

상처·장루전문간호사, 당뇨전문간호사, 혈액종양전문간호사, 복막투석전문간호사, 정맥주사전문간호사 등 전문간호사 육성을 통해 환자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핵심가치 1st. 친절 정성! 감동!

병원이 아닌 우리집처럼 편안한 환경을 제공할 수는 없을까? 2006년 3월부터 간호부는 고객 만족 TFTeam을 신설해 고객만족 향상을 위

한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병동환자 생일파티행사, 어린이날·어버이날·크리스마스 행사, 연말 환자위로행사 등을 통해 친절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분기별 환경관리심사로 쾌적한 병원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병동환자들의 고충처리와 친목도모 및 교육강좌를 위한 '환자와의 만남의 시간'을 병동별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5월 간호주간 및 1004데이를 선정해 세발간호, 내원환자 무료 혈압·혈당측정, 건강상담, 일일보호자 서비스, 내원객을 위한 심폐소생술교육 등을 통해 환자들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핵심가치 2nd. 지역사회 건강지킴이

2006년 5월 19일 '간호봉사단 발대식' 창단을 시작으로 82명의 대규모 간호봉사단원들은 소외되고 고통받는 해외 및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나눔과 봉사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전문간호사 육성을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암상담 및 호스피스 교육, 당뇨환자 교육, 장루상담, 복막투석환자교육, 소프플로지식 분만교실, 모유수유교육 등의 무료강좌를 운영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교육을 책임지고 있으며, 지하철 4호선 중앙역에서 '안산사랑 무료 건강체크 및 상담'과 외국인 노동자 자녀의 어린이집인 '코시안의 집'을 매월 방문하여 무료 진료 및 상담, 무료 약을 지급해 오고 있다. 교직원들로부터 기증받은 물품 등을 팔아 기금을 모금해 와동과 본오동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돕고 있으며, 안산시 간호사회와 협력해 노인간호 봉사활동, 독거노인 방문간호를 실시하고 있고, 의료원 봉사단에 참여하여 해외 재해지역인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 활성화를 위해 건강지킴이로서의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글 ● 원내기자 이선희(간호부) sunny5415@nate.com

※다음호에 간호부 부서탐방 II가 연재될 예정입니다.

(내용 : 핵심가치 3rd. 내부고객 감동시키기, 간호부장 인터뷰)

정신과 한창수 교수, 네티즌이 선정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의사'

환자들은 의사의 친절하고 설명 한마디에 큰 영향을 받는다. 병원에 도착해서 주차장에 어렵게 주차하고 접수창구를 거쳐 외래나 검사실에서 오랜시간 대기만 하다가 보면 그야말로 기진맥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의사의 친절하고 부드러운 설명 한마디는 의사를 만나기 전까지의 지루했던 피로를 한꺼번에 사라지게 한다. 진정 환자가 원하는 의사는 어떤 모습일까? 몸도 맘도 연약한 환자들... 살아가기 각박한 세상에도 '자세한 설명'으로 환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의사가 있어 소개한다.

고려대 안산병원 정신과 한창수 교수가 '헬스조선닷컴'이 선정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의사'에 선정됐다. 헬스조선닷컴은 최근 한 달간 3,000명이 넘는 네티즌이 참여한 가운데 40여명의 의사를 좋고 나쁜 대상에 올려놓아 환자가 진료실에서 만난 의사의 장단점을 점수화(평점)하는 '강추(強推) 헬스' 코너를 마련해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한창수 교수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의사'로 선정 됐으며, 이는 의료인의 실력이나 친절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 틀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 소비자'인 네티즌의 참여로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선택의 기준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헬스조선닷컴 한창수 교수 소개 페이지 댓글에는 'min416' 님이 "진료 과목이 정신과이니 꼭 맞는 진료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keikohun' 님은 "정말 마음 푸근하신 분이신것 같아요. 저도 한번 상담 받아 보고 싶군요" 'mishellvica' 님은 "이야기 건설적으로 들어주시는 정신과 의사쌤님도 많이 계시는데 속이 땡땡하니... 그 만큼 성심성의를 다해 귀를 기울여주신다는 말씀이시겠죠" 라고 적어 네티즌 및 환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한창수 교수는 세계정신의학회 WAP-YPC 한국대표, 고려대 안산병원 노인건강연구소장, 서울시 정신보건지원단 건강증진 분과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美 듀크대 의과대학에 연수중이다. 📌



고대의대 최초 비뇨기과 전문의 여풍담당, 오미미 교수



고대의대가 낳은 최초의 여성 비뇨기과 전문의가 탄생했다. 늘 '최초'라는 말에는 큰 기대와 설렘이 따르게 마련이지만 이번엔 더욱 특별하다. 현재 전체 의사 중 20%가 여의사지만 비뇨기과 전문의의 경우 전체 1,947명중 14명(2006년 말 기준)으로 1,000명당 7명에 불과하다. 그녀가 궁금했다. 고려대 안산병원 비뇨기과 오미미 전임의를 만나봤다.

여성의사로 비뇨기과를 전공한 이유가 있는지...

특히 여성으로서 비뇨기과를 선택한 계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원서를 쓰기 전에 비뇨기과 인턴을 돌았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비뇨기과의 이미지가 달리 중앙, 여성, 남성의학, 배뇨장애, 소아 등 다양한 질병을 다룬다는 것을 알고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비뇨기과를 전공해서 더 보람을 느낀 적은?

의사라는 직업자체가 보람을 준다고 생각한다. 특히 여성 환자들이 진료를 보러 와서 여자 의사라고 편하게 자신의 질병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실 때는 뿌듯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질병이 있어도 타과를 가거나 아파도 진료보기가 불편해서 참는 환자들이 있는 것 같다. 빠른 시기에 적절한 과에서 진료를 본다면 환자들이 병을 키우지 않을 거라 생각된다.

여자의사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물론 어려운 점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거짓말이겠지만 환자를 진료하는데 있어서 여자의사이기 때문에 장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지금은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변한 것을 느낀다. 여의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아마도 지금보다 더 많이 비뇨기과를 전공할 것이다. 산부인과에 남자 선생님이 있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듯이 앞으로는 비뇨기과에 여의사가 있는 것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게 될 것이다.

안산병원에 근무하면서 의사로서의 포부가 있다면?

안산주민 뿐만 아니라 자신이 병을 가지고 있어도 부족한 홍보 및 인식으로 인하여 자신이 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건강을 선물해 더 좋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 📌

오미미 전임의 약력

- 1996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입학
- 2002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2002년 고려대학교 부속병원 인턴 수료
- 2003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 교실 레지던트
- 2007년 비뇨기과 전문의 자격증 취득

글 ● 원내기자 최인재(영상의학과) gold8157@hanmail.net



협력병원 1호, 최상의 진료로 선교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샘 안양병원'

샘 안양병원은 2006년 2월 20일 고려대 안산병원의 첫 번째 협력병원이자 4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안양지역 최초의 병원으로, 500병상 규모의 안양지역 최고의 종합병원이다.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양 병원은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기대되는 가운데 상호발전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안양 샘 병원을 소개한다.

REMEMBER LAST 40 YEARS, AND CREATE NEW 40 YEARS

샘 안양병원은 지난 2007년 3월 2일 「지난 40년을 기억하며, 새로운 40년의 비전을 창조하자」는 각오와 함께 개원 40주년 선포식을 가졌다. 샘 안양병원의 자취는 1967년 현재 의료원장 황영희 박사가 안양의원 개원으로 시작된 이후 약 5년 후 1972년 현재 재단 이사장 이상택 박사가 원장으로 계승 25병상에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로 안양지역 병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40여년의 세월이 흐른 현재의 샘병원은 종합병원으로서의 규모 및 다양한 최신의료장비, 의료진들을 확보하고 30여개의 진료과가 개설되어 가동 중 이다.

머무르고 싶은 병원, 생명을 존중하는 병원

샘 안양병원의 운영은 단순히 진료에만 그 목표가 머무르지 않는다. 진료와 선교, 봉사, 연구, 교육의 5개 분야가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며 사랑과 섬김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 그 비전을 두고 있다. 이 비전의 꾸준한 실천활동에서 전인치유진료는 특별하다. 이 진료는 환자의 마음까지 치료하겠다는 구상이다. 전인치유집회 등을 통한 의사, 간호사, 봉사자들이 함께 환자들을 사랑으로 감싸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향상된 치료효과를 경험하고 있었다.

건강한 사랑이 샘솟는 샘병원

샘 안양병원은 최근 사랑을 실천하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CTS 기독교방송사와 글로벌케어, 비전케어서비스 NGO 기관들과 협력하여 산간오지에 무료이동진료 프로젝트 발대식을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샘병원은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기독교병원으로서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기 위해 아낌없는 진료진과 진료장비 그리고 진료차량을 지원



하기로 했다. 또한, 2007년을 새로운 도약의 40주년 선포의 해로서 해외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하는 중요함을 정의하고 사랑과 봉사의 영역을 전세계로 넓혀나가고 있다. 이미 샘 안양병원은 이곳 병원이 가진 인프라, 즉 우수한 진료진과 봉사와 섬김의 사랑을 가지고 세계의 각국 병원들과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각 국가별 대표적인 기독교병원들과의 진료품질 향상 및 봉사와 관련하여 모임과 국제세미나 등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방콕의 PRARAM9 병원과 진료와 봉사를 통한 협업을 위한 협약을 진행중에 있으며, 스와질랜드에서 의과대학/공과대학설립을 위한 기공식도 갖을 예정이다. 샘 안양병원은 의과대학과 병원설립에 관한 현장 실태조사를 지난해부터 실시하였는데, 이 프로젝트에서 샘병원은 의과대학건물건축과 더불어 의과대학 기자재와 교수, 직원의 숙소 대부

분을 제공하게 되고 대학교의 모든 운영 및 관리를 전담하게 될 예정이다. 샘 안양병원이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이유는 스와질랜드는 세계 최대의 AIDS 감염률(34%)을 보유한 의료취약 국가로,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부족해 의료선교가 반드시 필요한 국가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샘 병원'은 최상의 진료와 사랑, 그리고 신의를 바탕으로 지역과 함께 이국 이웃의 건강을 수호하고 친절과 봉사로서 육체뿐 아니라 영혼의 행복까지 되찾아주는 맑고 깊은 생명의 샘, 그 멈추지 않는 사랑이 솟는 '샘'을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여기고 있다. 언제나 사랑이 샘솟는 '샘병원'을 기대해 본다.

글 ● 산업의학센터 강봉구(b-goo@hanmail.net)

사진 ● 샘 안양병원 제공



출산 후 정수리가 흰해진 내 머리, 왜일까요?

출산 후 탈모가 잘 발생하는 이유와 그 예방법은...

3년차 여성 직장인인데, 출산한지 얼마 안 되는 몸으로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머리카락이 빠지면서 정수리가 흰해졌다며 외래에 김모씨(31세)가 최근 내원했다. 두피를 보호해준다는 샴푸도 써보고 발모제도 발라 보았지만 탈모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다고 한다. 모자와 가발로 이를 가리고 다니고 있지만 점점 빠지는 머리카락을 볼 때마다 스트레스가 늘어만 간다며 남(男)모를 고민을 털어놓았다. 문제는 출산 후 탈모. 출산 후 탈모의 발생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Q 출산 후 탈모가 발생원인은?

A 호르몬 영향때문, 정수리가 흰해 졌다면 전문의 찾아야...

태아를 임신한 경우의 여성은 체모의 성장기가 지연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것은 임신 중에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평소보다 10배나 증가하게 됨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털의 성장 속도를 늦춤으로서 모발의 생장기간을 연장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즉, 정상적인 경우라면 퇴행기와 휴지기를 지나 하루에 빠지는 모발이 40~100개 정도가 빠지게 되다가, 출산 후에는 성장기가 지연되었던 모발들이 모두 한꺼번에 퇴행기와 휴지로 몰리게 되는 양상을 띄게 된다. 출산 후 탈모는 주로 앞부분이 심하고 출산 후 2~3개월에 나타나며, 빠진 털은 6~12개월 정도면 회복이 된다. 머리의 앞부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산후탈모증상은 정상적인 휴지기 탈모이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정수리가 흰해질 만큼의 탈모증상이 발생했다면 바로 전문의를 찾아야 한다.

Q 출산 후 탈모를 예방법?

A 젤 및 염색은 NO, 샴푸는 OK!

출산 후 2~3개월 동안 머리카락이 건조해지면서 평소보다 2배 이상의 모발이 빠지게 되기 때문에 헤어스프레이나 무

스, 헤어 젤, 염색약, 파마약 등의 모발 용품은 두피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당분간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출산 후 6~12개월 정도가 지나 그동안 성장기가 연장되었던 모발들이 전부 빠진 후 부터는 정상적으로 되돌아오게 되므로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출산 후 많이 빠지는 모발을 걱정하여 샴푸의 횟수와 시간을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유분의 더러움을 축적시키고 습진내지 모발을 빠지게 하는 원인을 만들 수 있으므로 평상시와 같이 모발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평상시에 5분전후의 두피 마사지와 끝이 뭉통한 나무 빗등을 사용하여 하루 50회~100회 정도 두피를 자극시켜 주는 것도 모발 윤기와 더불어 두피 혈행 작용, 각질 제거, 모근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

도움말 ● 고려대 안산병원 성형외과 윤율식 교수

진료 시간표

☞ 오전 : 09:00 ~ 12:00 ◆ 오후 : 13:00 ~ 17:00 ◎ 중일 : 09:00 ~ 17:00 ●* : 선택진료의사 2007.03.19

진료과명	의사명	월	화	수	목	금	토	세부진료내역
소화기내과	최재현* 이상우* 이홍식* 임형준* 구자성* 김동일* 장성우* 김진남*	☉	☉	☉	☉	☉	☉	대장·소장질환, 내시경치료 위, 식도, 소장질환, 소화관 운동질환 간, 췌장, 담도질환 간장질환 소화기질환 소화기질환 소화기질환 소화기질환
순환기내과	송우혁* 안정천* 임홍환* 김성환* 박미영*	◆	☉	☉	☉	☉	☉	고혈압, 협심증, 심장판막질환, 심부전증 고혈압, 협심증, 심장판막질환, 심부전증 부정맥, 고혈압, 심장판막질환, 심부전증
호흡기내과	신철* 김재형*	◆	☉	☉	☉	☉	☉	고혈압, 심장판막질환, 심부전증 천식, 수면장애, 기관지질환, 폐질환 중환자치환,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암 폐렴, 결핵, 기관지 내시경 결핵, 폐렴,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신장내과	차대룡* 강영선* 고강지*	☉	☉	☉	☉	☉	☉	신장이식, 시구체신염, 부종, 투석 시구체신염, 세뇨관질환 부종, 혈뇨, 당뇨, 투석
내분비내과	김남희* 서지아* 박주리* 일반의	☉	☉	☉	☉	☉	☉	당뇨, 갑상선, 비만, 골다공증, 뇌하수체 당뇨, 갑상선, 비만, 골다공증, 뇌하수체 당뇨, 갑상선, 비만, 골다공증, 뇌하수체 일반진료(양세정) 첫째주(서지아교수), 셋째주(박주리교수)만 진료 당뇨환자 초진 진료만
감염내과	박대원*	☉	☉	☉	☉	☉	☉	열, 열병, 열중성질환
중앙혈액내과	최인근* 성화정*	◆	☉	☉	☉	☉	☉	중앙질환, 혈액질환, 항암치료 중앙질환, 혈액질환, 항암치료, 유방암
내과	일반의	◆	☉	☉	☉	☉	☉	일반진료
외과	김승주* 손갈수* 윤준환* 송태진* 민병욱* 박성훈* 김종환* 서신도* 김영수*	◆	☉	☉	☉	☉	☉	위암, 상부위장관 유방, 내분비학(해외연수) 대장항문학 간, 췌장, 담도질환, 장기이식, 혈관 대장항문학, 유방, 내분비학 위암, 상부위장관 위암, 상부위장관 간, 췌장, 담도질환 유방, 내분비학
정형외과	김성곤* 박정호* 박종웅* 황준호* 이재욱* 김동환* 일반의	◆	☉	☉	☉	☉	☉	인공관절, 척추질환 어깨팔꿈치, 관절, 스포츠의학 수부외과, 미세재건외과 무릎관절, 족부 척추 정형외과 일반 정형외과 일반
신경외과	박정호* 조태형* 임동준* 김세훈* 김상대*	◆	☉	☉	☉	☉	☉	정위기(동통, 운동장애, 간질) 뇌졸중 척추질환, 척추외상 뇌혈관질환, 뇌졸중, 두통, 뇌종양 해외연수 소아뇌질환, 뇌혈관질환, 척추통증
흉부외과	이인성* 박형주* 신재승* 조원민* 일반의	◆	☉	☉	☉	☉	☉	선천성 심장수술, 일반 흉부수술 오목가슴, 폐암, 식도암, 선천성 심장수술, 일반 흉부수술 관상동맥질환, 대동맥질환, 심부전증 심장판막질환, 방정맥수술, 말초혈관수술, 다낭성, 최소침습수술
성형외과	윤을식* 등은상* 장현* 김덕우* 일반의	☉	☉	☉	☉	☉	☉	유방, 체형교정, 미용(눈, 코, 인면주름) 선천성기형, 수부재건 해외연수 미용성형, 악안면외상, 수부재건 악안면외상, 수부재건, 미용성형 성형외과 일반
산부인과	김택* 김해중* 이낙우* 박성훈* 설현주* 장난희* 장소은*	☉	☉	☉	☉	☉	☉	불임, 폐경기장애, 복강경수술(자궁축, 난소축) 고위험임신, 수산기질환(수오전·산모안 진료) 부인과, 종양, 자궁암, 난소암 산과, 일반부인과 산과, 일반부인과 산과, 일반부인과 일반부인과
산업의학과	박종태* 김병현* 전형준* 장소은*	☉	☉	☉	☉	☉	☉	건강진단, 직업성근골격질환, 임상예방의학 직업성질환, 환경의학, 보건관리 건강진단, 직업성근골격질환, 임상예방의학 산업의학과 일반

*신부인과, 소아과, 클리닉시간에는 예약환자만 진료 *정신과 이분회: 금요일 오후 소아만 진료 *피부과: 김원환(목요일), 클리닉 예약환자만 진료
*산부인과 클리닉: 김택(목요일, 금요일), 김해중(월요일, 수요일, 오후), 이낙우(화요일), 설현주(화요일)에 예약환자만 진료 가능.

QI24시

장기재원 환자의 재원 중 차트 관리를 통한 의무기록의 질 향상 방안



의무기록은 의료감사(medical audit), 이용도조사(utilization review), 질관리 활동(QA), 의학연구 및 교육에 필요한 임상자료, 병원통계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고려대 안산병원 2006년 QI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의료정보팀의 '장기재원 환자 차트관리를 통한 의무기록의 질 향상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의료정보팀 QI팀(팀장: 양소영부팀장)에서는 '장기재원 환자의 재원 중 차트관리를 통한 의무기록의 질 향상 방안'이라는 주제로 10개월간의 QI활동을 전개했다. 2006년 3월, 재원일수가 30일 이상인 환자는 총 43명. 본격적인 QI활동에 앞서 재원기간 중의 의무기록 미완성률과 활동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조사 자료를 분석했다. 활동 전 의무기록 완결도의 분석 결과와 서식지별 의무기록 활동 전 완성률을 토대로 '정확성, 인식변화, 정리를 향상'이라는 목적 아래 '장기 재원 환자 의무기록 완성률을 평균 20% 향상시킨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안되면 되게 하라!"

이에 시범활동 시 사용된 조사표를 수정 보완하여 최적의 조사표를 사용, 조사도구를 개발하였고, 순환근무표를 참조하여 전공의에게 재원 중 환자 의무기록의 작성을 알리고 교육하여 QI 활동의 참여율을 높였으며, 의료정보팀 내 미비 정리실에 QI게시판을 제작하여 전공의에게 재원 중 의무기록 현황을 알리고 적극 홍보하였다. 또한 특수검사항목의 번거로운 확인 작업을 신속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기존의 경과기록지와 수술기록지의 OCS(의료정보전산시스템)작성 문제를 파악하여 전산개발을 요청하였고, 전공의의 소리를 비치, 시범 활동 후 전공의의 의무기록 작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반영하였으며, 충실하게 의무기록을 작성한 전공의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의무기록 작성에 대한 동기부여를 했다.

"전공의의 참여와 시스템 개선이 관건"

이렇게 10개월간의 QI활동을 전개한 의료정보팀은 서식지별 완성률에서 '동역사'의 경우 30.0%에서 68.9%로 약 40%의 향상을 보였고, '수술기록'은 50.6%의 높은 완성률을 보였다. 또한, 서식지 중 필수항목별 완성률에선 전출, 전입기록 완성률의 각각 10.0%, 13.5% 향상을 보였고, 경과기록 누락일수에선 11.7%에서 27.7%로 크게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미정리된 차트는 완성될때까지 미비확인 업무와 재스캔의 과정을 여러번 되풀이하게 된다. 만약 재원중에 차트가 정리되어 반납된다면, 이 업무를 여러번 반복하지 않고 완성된 의무기록으로 만들어 낼 수 있지 않는가! 이는 재스캔 작업을 단축시키고, 미비 마감시 의료정보팀의 업무량을 단축시키며, 전공의의 의무기록 정리량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의무기록 복사 신청시 신속하고 완전한 의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업무 프로세스의 효과는 눈에 띄게 수월해질 수 있을 것이다.

글 ● 원대기자 이선희(간호부) sunny5415@nate.com



간호부, 직무교육평가시험 우수자 시상

간호사의 학습의욕 고취시키는 계기 마련, 최우수상에 응급실 김수현 간호사 영예



최우수상 수상자 = 오른쪽에서 세번째 김수현 간호사(응급실)

고려대 안산병원 간호부(부장: 김정숙)가 2월 20일 별관 2층 세미나실에서 2006년도 '직무교육평가시험 우수자 시상식'을 거행했다. 간호부는 상·하반기 매년 두 차례의 평가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호사들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개최한 이번 '직무교육평가시험'에서는 최우수상에 김수현 간호사(응급실), 우수상에 조은하 간호사(81병동), 김주란 간호사(외과중환자실), 전승환 간호사(내과중환자실), 김현란 간호사(응급실) 등 5명이 영예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에서 김정숙 간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직무향상을 위한 전문인의 노력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며 "2007년도에는 간호사들의 needs를 반영한 교육방법 및 다양한 교육 아이템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간호부는 이번 직무교육을 portal 동호회(http://portal.kumc.or.kr/club/asedu) 자료실을 통해 self study 방식으로 운영했으며, 간호교육 및 간호행정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고 있다.